

碩士學位論文

자연염색을 이용한 화기(花器)

디자인 연구

- 섬유를 중심으로 -



濟州大學校 産業大學院

産業디자인學科

張美那

2006

자연염색을 이용한 화기(花器)

디자인 연구

- 섬유를 중심으로 -

이 論文을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6年 月 日

濟州大學校 産業大學院

産業디자인學科 工藝디자인 專攻

張 美 那

姜銀英의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2006年 月 日

委員長

印

委 員

印

委 員

印

목 차

Summary

I. 서론

- 1. 연구목적..... 1
- 2. 연구범위 및 방법 2

II. 화기(花器)에 대한 이론적 고찰

- 1. 화기의 개념 3
- 2. 화기의 역사 4

III. 현대 화기작품에 나타난 조형성

- 1. 현대 화기의 종류 12
- 2. 현대 화기의 재료 17
- 3. 현대 화기의 형태 및 조형성 22

IV. 자연염색의 일반적 배경

- 1. 자연염색의 의의 27
- 2. 자연염색의 종류 28
- 3. 자연염색의 방법 31

V. 작품제작 및 설명

- 1. 제작배경 34
- 2. 작품설명 37

VI. 결론 61

- 참고문헌 62

도 목차

〈도1〉 조선시대 책가도	9
〈도2〉 삼국시대 삼존형식	9
〈도3〉 백제시대 맞귀항아리	9
〈도4〉 삼국시대 수막새 기와	9
〈도5〉 고려시대 과형병	10
〈도6〉 고려시대 매병	10
〈도7〉 조선시대 책가도	10
〈도8〉 조선시대 문자도	10
〈도9〉 조선시대 화조도	11
〈도10〉 조선시대 혼례식	11
〈도11〉 조선시대 제례의식	11
〈도12〉 조선시대 수월관음도	11
〈도13〉 수반	15
〈도14〉 꽃병	15
〈도15〉 콤포오트	15
〈도16〉 바구니-1	15
〈도17〉 바구니-2	15
〈도18〉 항아리	15
〈도19〉 변형화기-1	16
〈도20〉 변형화기-2	16
〈도21〉 변형화기-3	16
〈도22〉 변형화기-4	16
〈도23〉 나무	20

〈도24〉 대나무	20
〈도25〉 한지	20
〈도26〉 지승	20
〈도27〉 초경	20
〈도28〉 양모	20
〈도29〉 유리	21
〈도30〉 플라스틱	21
〈도31〉 도자기	21
〈도32〉 금속	21
〈도33〉 석재-1	21
〈도34〉 석재-2	21
〈도35〉 섬유/양모	24
〈도36〉 섬유/짚	24
〈도37〉 섬유/초경	24
〈도38〉 섬유/한지	24
〈도39〉 섬유-1	25
〈도40〉 섬유-2	25
〈도41〉 섬유-3	25
〈도42〉 섬유-4	25
〈도43〉 나무	26
〈도44〉 도자기	26
〈도45〉 금속	26
〈도46〉 유리, 금속	26

작품 목차

〈작품1〉 봄의 향기	37
〈작품2〉 바람결따라I	40
〈작품3〉 바람결따라II	43
〈작품4〉 꽃그늘에 누워	46
〈작품5〉 산들바람의 향연	49
〈작품6〉 자색빛의 우물이야기	52
〈작품7〉 꽃향기에 젖어	55
〈작품8〉 들잎의 소리	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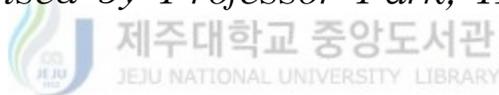
Study of Flower Vase Design Using Natural Dyeing

- centered on textiles -

Jang, Mi-Na

Industrial arts Design Major
Graduate School of Industry
Ch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Park, Hyun-Young



Summuy

While our ancestors used flower vases indoors such as in detached houses, the main building of a house, private schools or government offices, flower vases served the function of fixing a flower's shape and sustaining the vitality of flowers. Since the dawn of modern society, people's standard of living has improved, the consciousness of residential environment has changed and lifestyle has been altered, so that now more attention is paid to interior decoration. Accordingly, the necessity of interior small articles has been recognized for indoor residential spaces and a variety of designs are even being developed for such articles as flower vases, lighting, frames and clocks. Among them, flower vases are

emerging as one of the more important small interior items which can simultaneously satisfy aesthetic desires as well as serving a practical function. The role of flower vases in making people feel close to nature indoors has become much more important due to the urbanization of residential spaces as well as changes in lifestyle and cramped living spaces in modern times.

Today wellbeing and healthiness are the new buzzwords, and against this backdrop the concept that natural is beautiful is catching on. Natural dyeing of non-man-made materials is a developing new trend in consumers' preferences. Thus natural materials and various designs need to be developed on the basis of naturalism, the foundation of which places an emphasis on the inherent purpose of flower vases to bring outdoor nature indoors. The vase is recognized as a small sculpture in a room, not as a container simply to hold flowers.

This thesis examines the creation of nature-friendly flower vases that give a high-class product 'feel' by using various shapes of natural beauty, natural colors collected from nature and geometric forms with modern simplicity, which satisfy people's tastes and desires. Furthermore this thesis also intends to develop the flower vase into a work of art with dry flowers that can be used on a long-term basis regardless of season. Therefore the floral artwork can also include sculptures necessary for visual pleasure, emotional stability and contemporary people's living space.

The conclusions made from the study and a workshop suggested in the thesis are as follows.

First, natural dyeing on silk using dyeing materials gathered from

nature generates a diversity of natural colors. The refined arrangement of the colors can present a contemporary aesthetic sense.

Second, when a flower vase with a refined arrangement of natural colors and geometric forms is brought into a room, people can obtain visual pleasure and emotional stability through the simultaneous appreciation of modernity and nature.

Third, as natural colors stemming from the coloring of natural materials shows low chroma and beautiful color tones, nature can be appreciated indoors through natural color tones. The vases can be developed into a sculptures essential to contemporary living spaces after they are imbued with characteristics of formative art works with various shapes using natural materials.



I. 서론

1. 연구목적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은 사랑채나 안채, 서당, 관공서 등 실내에서 화기(花器)를 사용해 왔는데 화기는 꽃의 형태를 고정시키고 꽃의 생명력을 지속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현대사회로 접어들면서 사람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주거 생활환경에 대한 의식이 변하였으며 생활양식이 변함에 따라 더욱 내부의 실내장식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에 따라 실내 주거공간에서 사용되는 인테리어 소품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화기, 조명, 액자, 시계 등의 인테리어 소품에서도 다양한 디자인이 개발되고 있다. 그 중에 화기는 실용적 기능을 갖추면서 동시에 미적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중요한 인테리어 소품 중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고, 주거의 도시화 및 생활양식의 변화와 협소한 생활공간의 제한으로 인해 실내에서 자연을 느끼게 하는 화기의 역할은 한층 더 커지게 되었다.

또한 오늘날 웰빙 열풍이 일면서 자연적인 것이 가장 아름답다는 개념이 자리 잡고 있고 천연 소재의 자연염색이 소비자의 기호를 충족시키는 새로운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화기는 예전처럼 단순히 꽃을 담은 화기가 아닌 실내공간에 작은 조형물로 인식되어져 인간이 실외의 자연을 좀 더 가까이 두기 위해 실내로 가져오하고자 하는 본연의 목적을 바탕으로 자연주의에 기초한 천연소재와 다양한 디자인이 개발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정형화되지 않은 자연미의 다양한 형태와 자연에서 채취한 자연의 색과 현대적 단순함이 있는 기하학적 형태로 현대인의 기호와 욕

구에 부합하는 고급스러우면서 자연친화적인 화기를 개발하고자 한다. 이 화기는 계절에 구애받지 않으면서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드라이플라워(Dry flower) 소품과 함께 시각적 즐거움과 정서적 안정감을 통하여 현대인의 생활공간에 필요한 조형적 작품으로 발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범위 및 방법

요즘 자연적이 것이 가장 아름답다는 사고가 부각되면서 천연소재인 자연염색이 건강에 좋고, 색상이 아름다워 소비자들의 기호를 충족시켜주고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자연염색을 통하여 고급스러우면서 자연친화적인 이미지를 현대적 감각으로 표현하여 주위공간과 조화를 이루면서 장식적 효과를 얻을 수 있게 하고, 그 자체만으로도 자연미와 다양한 조형성이 돋보이는 새로운 미를 창출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연구한다.

첫째, 화기의 개념 및 역사에 대한 이론을 고찰한다.

둘째, 현대 화기의 종류 및 재료를 살펴보고 화기 작품에 나타난 형태와 조형성에 대해 분석한다.

셋째, 자연염색의 의의 및 종류와 방법을 이해하고 연구한다.

넷째, 천연섬유 중에서 자연염색의 색상발색이 가장 좋은 실크(Silk)에 자연염재로 염색을 하여 조형작품으로 표현한다.

II. 화기(花器)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화기의 개념

화기를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꽃을 꽂는 그릇을 말하며 꽃을 꽂는 용구로서의 역할 이외에 꽃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고, 화기 자체의 모양이나 색채 등으로 꽃의 아름다움을 한층 더 돋보이게 하는 역할도 한다. 또한 화기는 어느 특정한 것으로 규정지어 있는 것이 아니라 꽃의 소재나 꽃꽂이를 하는 사람의 취향, 혹은 꽃이 놓여 질 장소나 그 성격에 따라 자유자제로 쓰여 질 수 있으며, 화기 자체만으로도 생활양식이나 가구 공간을 장식하는 소품으로 자연스럽게 우리 삶속에서 발전해 왔다.

화기를 재료에 따라 구별하면 목재, 죽재, 도자재, 금속재 등이 있고 이 밖에 유리, 에보나이트, 셀룰로이드, 플라스틱, 고무 등도 사용된다. 용도상으로는 병, 수반, 콤포트(Compote),¹⁾ 변형화기로 구별되며 이러한 종류들은 벽에 붙여 장식하거나 바닥에 장식하기도 한다.

우리나라 화기는 문명의 발달 과정에 따라 토기에서 자기로 발전하였고, 초경, 옥, 돌, 구리, 쇠, 등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였다. 그중에서 자기는 아름다운 조형미를 가지며 한국 꽃들과 잘 어울려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기명(器名)²⁾이 많고 형태에 따라 병(瓶), 호(壺),³⁾ 받(鉢),⁴⁾ 반(盤)⁵⁾ 등 다양하다.

화기는 꽃을 담는 용도이외에 관상적(觀賞的)인 용도성(用度性)을 갖는 기

1) 수반에 다리가 달려있는 화기

2) 살림살이에 쓰는 온갖 그릇, 기물.

3) 아가리가 작고 중배가 부른 단지의 모양

4) 바리때(중의 밥그릇), 뜻을 나타내는 쇠금

5) 소반 · 쟁반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

명이므로 식기나 저장기에 비해 기능성보다는 조형성을 고려하여 제작되었다. 그래서 꽃을 꽃지 않고 독자적인 조형물로 관상되거나 보병(寶瓶)⁶⁾과 같이 상징적 의미를 갖고 실내에 놓여지기도 하였다.

2. 화기의 역사

화기는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생성된 물건이므로 그 역사적 기원을 분명히 알기는 어렵다. 단지 고대 샤머니즘(Shamanism)⁷⁾에 의한 종교행사에서 꽃이 사용되었다는 기록을 볼 때 옛 조상들은 꽃을 장식성보다는 정신적인 요소에 의해서 사용했다고 추측되어지며 화기 또한 장식적인 용기보다는 제례용기로 사용되어졌다. 이후 고려시대에서부터 화기가 예술성을 지닌 장식품의 성격으로 점차 전환되었다.

제례의식이 강조되었던 삼국시대와 귀족문화가 발달된 고려시대에는 어느 정도 그 형태가 정해져 있었지만 화기의 형태는 정해져서 사용되어지는 것은 아니었다. 꽃을 꽃아서 고정시킬 수 있는 용기이면 화병이나 화기로 사용이 가능했다. 한 예로 조선시대의 민화를 보면 그림속의 화병의 형태가 매우 다양하다. 물론 민화를 그린 화가의 미감도 상당히 반영되었을 것으로 추측되나 꽃을 꽃을 수 있으면 화기로 사용할 수 있었다.(도1)

1) 삼국시대의 화기

삼국시대에는 당시 쓰인 화기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으나 간접적인 자료에

6) 절에서 쓰는 '꽃병'이나 '물병' 따위를 아름답게 이르는 말

7) 시베리아 북부의 원주민 사이에서 시작되어 극동 지방으로 전해진 원시 종교의 한 형태. 무술(巫術)

의해 삼국시대 화기의 형태를 짐작하는 것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수막새 기와를 살펴보면 삼국시대에는 제례의식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꽃꽂이의 형식이 정해져 있었으며, 그에 따른 기명도 엄격하게 구분되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삼국시대에 불교가 널리 전파되어 불교의식이 성행했으며 부처님께 봉헌하는 의식에서 꽃이 필수 의장(儀裝)으로 상징되고 그 형식도 삼존형식(三尊形式)(도2)을 취했다.

삼존형식(三尊形式)이란 중앙에 직립한 가지를 꽃고 좌우로 반개(半開)한 꽃을 꽃아 세 가지가 하나로 통일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으로, 이 형식으로 꽃을 꽂으면 화병의 형태는 목 부분이 좁아지면서 전부분이 넓게 퍼져야 한다. 하지만 화병이나 화기라고 명명된 용기는 찾기 어려웠다..⁸⁾

고구려시대에는 화병에 대한 자료가 없어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불교의 전파로 고구려에서도 꽃을 꽂는 화병이 삼국시대의 삼존형식으로 확인 할 수 있다.

백제시대의 토기는 한나라와 고구려의 영향을 받아 경질 토기의 제작이 이루어졌다. 서울 구의동 백제초기 고분에서는 맞귀항아리(도3)가 출토되었는데, 맞귀항아리는 독과 같이 긴 몸에 밑은 편평하고 목은 거의 없이 전이 밖으로 말리듯이 벌어지고 양측에 넓은 손잡이가 부착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신라시대의 수막새 기와(도4)를 보면 전부분이 넓게 벌어진 항아리 형태에 꽃이 꽂혀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으며 항아리, 병의 특징은 1000℃ 이상에서 구운 것으로 단단한 석기질이며, 물레사용이 보편화되어 있어서 그 형태도 상당히 다양했다.

8) 이희정, 2003, “한국의 야생화 이미지를 형상화 한 화기디자인 연구”, 석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디자인대학원, p.6.

2) 고려시대의 화기

고려시대에는 송(宋)과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선진기술의 유입이 용이했고 상업이 번성하여 중산층과 귀족층이 발달한 불교의 전성기였다. 일반적으로 공예문화가 발달할 수 있는 요소 중 하나인 재력 있는 중산층이 많은 시대였다. 뿐만 아니라 귀족들이 개인적으로 불당을 만들면서 꽃꽂이가 대중화되고 화기의 형태도 귀족취향으로 발전했다.

불교문화의 번창은 불전공화(佛典供花)⁹⁾의 발달로 이어져 화기의 수요를 증가시켰다. 한 형식으로 꽃을 바치는 의식은 거의 불교 전래(傳來)와 때를 같이한 것으로 보인다. 사람이 죽으면 불사(佛寺)에 가서 사자(死者)의 망령(亡靈)을 위하여 부처에게 축원(祝願)을 하는 것이다. 특히 사람이 죽은 지 49일이 되는 날에는 사십구제(祭)라 하여 죽은 영혼이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제를 지내는데 이때의 제단(祭壇)에는 연꽃을 꽂는다. 화기는 엄격한 의식용 제기(製器)¹⁰⁾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나 점차 예술성을 지닌 장식품의 성격으로 전환되었다.

고려시대 화기의 대표적인 예로 과형병(瓜刑瓶)(도5)을 꼽을 수 있는데, 이는 조형성과 기능성을 겸비한 전형적인 화기의 형태라 볼 수 있다. 고려시대에는 과형병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화기가 있었다. 매병(도6)은 술병이라고 하는 설도 있지만 단순히 술병이라고 보기에 그 조형성과 기능이 너무 화기에(花器)에 가까운 점이 있다. 그 이름이 매(梅)인 것은 화기로 사용되는 것 중에 특히 매화 가지만을 꽂는 것이 더욱 운치가 있고 격이 높아 보이는 데서 유래한 것이라는 설이 있다.¹¹⁾

9) 불전에 그 계절에 핀 꽃을 바침, 또는 그 꽃

10) 기구나 그릇을 만들

11) 전계서, 2003, p.7.

3) 조선시대의 화기

조선시대의 화기는 유학(儒學)의 영향으로 고려시대의 귀족적이던 표현감각에서 실용성이 강조된 민중적인 조형으로 바뀌었고, 불교로부터의 미적 제약이 없어지면서 서민의 잠재적인 미의식이 나타나게 된다.

꽃꽂이나 화병에 대해 엄격함이 없어서 일반화되어 졌을 뿐만 아니라 장식 용으로도 제작되었고 화병에 대해서도 특별한 기명이 없다. 다만 실용성이 강조되면서 꽃을 꽂을 수 있는 형태의 용기에 꽃을 꽂았다.

이는 옛 민화의 소재로 화병이나 꽃, 문방구 등이 함께 그려진 것이 많은데 화병의 용도에 관계된 측면보다는 그 상징성을 강조했다. 화기의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실용성이 강조되었으며, 일반적으로는 다른 용도의 병과 차이점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아 주병형병이 화병으로 사용되었으며, 화병의 크기로 봐서 책가도, 문자도, 화조도 및 혼례나 제례의식 등의 의미 있는 행사에서는 꽃을 꽂기 위한 병으로 제작되어진 듯 하고,(도7, 8, 9, 10, 11) 고려시대 수월관음도(水月觀音圖)(도12)¹²⁾에서의 정병은 버드나무 가지로 꽂는 꽃병으로 사용되었다.

4) 현대화기

조선시대 이후 일본의 식민지 통치하에 들어가면서 우리민족의 생활은 피폐해져 갔고, 일본의 민족 문화 말살 정책으로 암흑기를 맞게 되었다. 이때에는 화기에 꽃을 꽂을 여유는 없었다. 우리 화기의 역사적 존재 자체가 망각되었고 일본이 꽃꽂이 문화(이케나바)¹³⁾가 역수입되는 현상도 일어나게 되었다.

광복 후에도 6.25등의 격변하는 정치적 혼란 속에서 문화, 예술 분야의 활동은 매우 침체되었으며, 1950년대 후반 차츰 생활의 여유와 질서를 되찾아 꽃꽂이 문화가 다시 시작 되려 했을 때, 일본의 꽃꽂이로는 에도시대 유행했던

12) 관음보살을 주제로 그린 화려하고 섬세한 고려시대의 불화.

13) 17C말부터 18C 전반에 일본에서 유행한 꽃꽂이 형식

다화(茶話)와 17세기말의 생화(生花) 그리고 세계 제2차 대전 이후에 유행한 자유화양식이 있다. 이러한 양식들은 우리의 화기 문화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이와 같은 일본의 꽃꽂이 양식의 도입과 함께 현대화기의 개념에 큰 변화를 준 요인 중 하나가 기(器)에 대한 개념의 변화이다. 현대에서는 은은한 자연미를 풍기게 되고, 조용한 향취를 느끼게 하기 위해 화려한 색상의 화병이 아닌 주로 토기류나 자연미 넘치는 각종 도자기류가 많이 차지하게 되었다.

기(器)가 실용적인 그릇에서 기능을 제거하고 순수한 형태로만 다루는 것은 결코 단순한 그릇이 아니라 용도외의 어떤 가치가 담겨 있다고 여겨지게 된 것이다.

현대의 기(器)란 항아리와 같은 실용적인 그릇의 본질을 드러내 주는 하나의 오브제(objet)로써 그릇의 형태를 암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기능에 얽매이지 않고 한 작가의 개인적인 예술적 안목을 확대해서 표현해 주는 작품을 말한다.

이러한 기(器)에 대한 개념 확산과 함께 서양의 화훼장식문화 유입과 소재의 다양한 개발로 화기는 그 종류가 더 다양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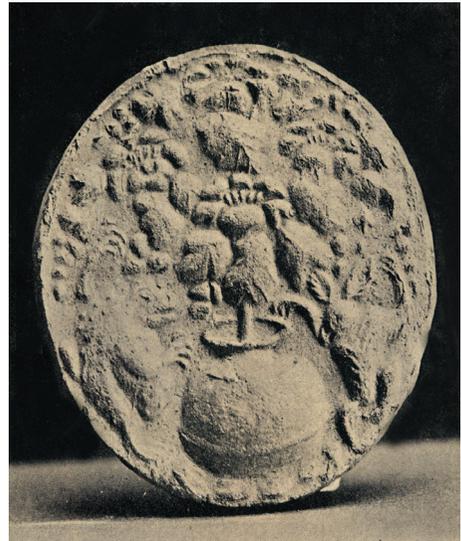
<도1> 조선시대 책가도



<도2> 삼국시대 삼존형식



<도3> 백제시대 맞귀항아리



<도4> 삼국시대 수막새 기와



<도5> 고려시대 과형병



<도6> 고려시대 매병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도7> 조선시대 책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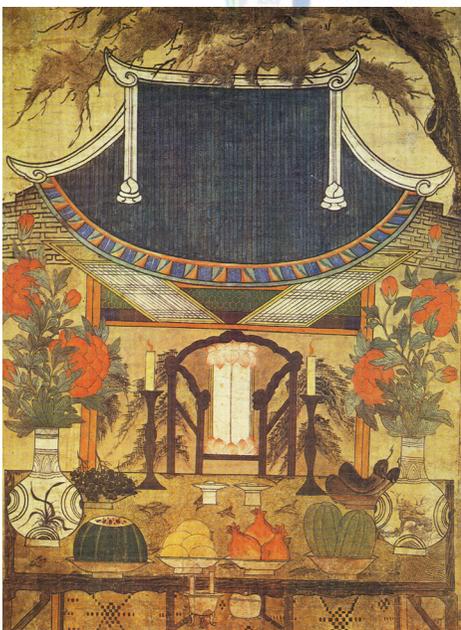
<도8> 조선시대 문자도



<도9> 조선시대 화조도



<도10> 조선시대 혼례식



<도11> 조선시대 제례의식



<도12> 조선시대 수월관음도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III. 현대 화기작품에 나타난 조형성

1. 현대 화기의 종류

화기는 일반적으로 병과 수반으로 크게 나누는데 도자재 용품이 그 대부분을 차지하며 그 외에 콤포트 등 신형의 화기류나 유리그릇, 바구니, 금속재 용품, 생활용기 등도 화기로 활용되고 있다.

1) 수반(basin)

높이가 낮고 폭이 넓은 화기를 일컫는다. 주로 침봉을 이용한 꽃꽂이에 이용되며, 꽃꽂이의 기본형을 이용하기 용이하므로 초보자들이 애용하는 화기이다. 모양은 사각형, 원형, 타원형, 삼각형, 반달형, 접시형 등이 있으며 가정에서 향아리 뚜껑, 대접 등을 수반 대용으로 사용하기도 한다.(도13)

2) 꽃병(vase)

병꽃꽂이란 입구가 작고, 키가 큰 화기 즉 병에다 꽂은 꽃꽂이를 통틀어 일반적으로 꽃병이라고 한다. 수반과는 달리 입이 좁고 높이가 있는 것을 말하고 통, 병, 향아리 등의 형태를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높이 20~40cm의 아래위의 넓이가 크게 차이나지 않는 것이 좋으며, 보통 꽃꽂이라 하면 병꽃꽂이를 연상하게 되는데 그만큼 수반 꽃꽂이에 비해 꽃이나 나뭇가지를 꽂으면 되는 병꽃꽂이가 손쉽고 옛 사람들의 정서에 맞았기 때문이다. 침봉을 사용하는 수반 꽃꽂이에 비해 역사가 길어 널리 행하여졌으며, 대체로 작은 종류의 화재(花材)나, 작은 수의 꽃가지를 꽂게 되는 병꽃꽂이에서는 화기가 많이 노출되므로 화기의 선택이 더욱 중요하다.(도14)

3) 콤포오트(compote)

수반이나 병보다는 조금 더 현대적인 감각을 지니는 화기로서, 수반 같이 폭이 넓고 길이가 짧은 용기에 다리가 달린 모양이 일반적이다. 수반이나 화형보다 형태나 색채상 변형이 많으므로 콤포오트 자체가 꽃꽂이 분위기를 결정짓는 경우가 많다. 또한 수반과 마찬가지로 침봉을 이용한다.(도15)

4) 바구니(basket)

여러 가지 모양, 색상 및 크기가 있으며 가격도 저렴하여 많이 사용되고 있다. 또한 가볍고 손잡이가 있는 것이 많아 운반이 용이하여 취급하기 쉽고, 짜여진 구성을 하고 있어 분위기는 거친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서민적이고 자연적인 이미지가 강한 작품을 구성하는데 적합한 용기이다.(도16, 17)

5) 항아리(jar)

병에 비해 입이 넓고 배가 부른 것을 일반적으로 항아리라고 부르며 항아리의 모양과 크기, 형태에 따라 사용방법이 다르다. 동양적인 디자인에는 주로 나뭇가지로 엮은 지지대를 항아리 속에 넣어 식물재료가 지지대에 의지하며 꽃혀 간결한 동양적인 멋을 표현하고, 서양적인 디자인에는 항아리의 입구에 맞는 플라스틱 용기를 얹고 플로럴 폼(Floral form)을 넣어 고정된 후 식물재료를 꽂거나 항아리 안에 철망 등을 구겨 넣은 뒤 꽂는다.(도18)¹⁴⁾

6) 변형화기

예부터 내려오는 화기는 현대에 들어오면서 꽃꽂이의 소재가 확대되고, 또 비사실적 묘사가 늘어남에 따라 수반, 병, 콤포오트 등 기존의 화기에서 모양을 크게 변형시켜 전혀 다른 느낌의 새로운 형태나 색채를 지닌 현대화기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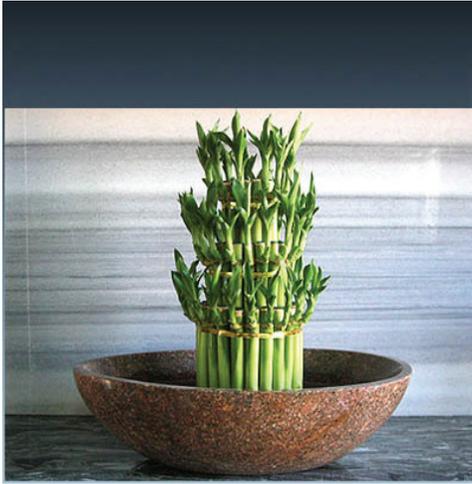
14) 박윤점 외, 2005, 「화훼 장식학」, 위즈밸리, p.211.

늘어나게 되었다. 이것을 변형화기라 한다.(도19, 20, 21,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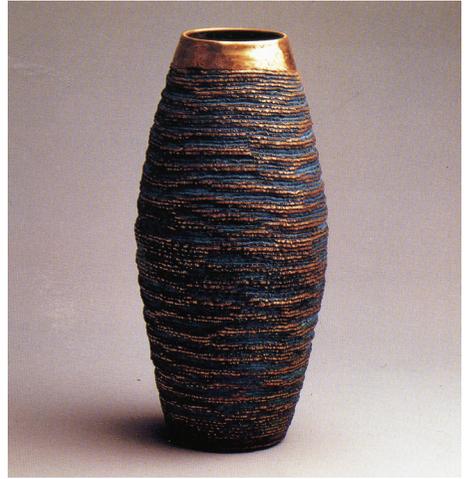
7) 기타도구

시판되는 용기 이외에도 생활용품이나 폐품을 이용하여 또 다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고 생활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목기, 유리그릇, 향아리 뚜껑, 놋그릇, 고목 등도 용기로 직접 제작하여 화기로 사용할 수 있다.





<도13> 수반



<도14> 꽃병



<도15> 콤포오트



<도16> 바구니-1



<도17> 바구니-2



<도18> 항아리



<도19> 변형 화기-1



<도20> 변형 화기-2



<도21> 변형 화기-3



<도22> 변형 화기-4

2. 현대 화기의 재료

다양한 모양과 크기 · 스타일 · 재료 · 가격에 따른 여러 가지 화기를 선택하는 일은 어떤 꽃을 선택하느냐에 따른 것뿐만 아니라 디자인을 어디에 놓을 것인지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화기는 전체 디자인과 놓일 장소에 시각적, 물리적으로도 잘 어울려야 한다. 현대의 다양한 재료로 만든 화기를 보면, 가장 일반화 되어 있는 화기의 재료는 유리와 플라스틱을 비롯한 도자기이며,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와 재료의 화기도 자주 사용하는데 나무, 대나무, 한지, 초경, 양모, 지승, 금속 등이 있다.

1) 식물성

① 나무(wood)



자연미가 있어 장식성이 뛰어나지만 습기에 의해 형태의 변형이 생길 수 있다.(도23)

② 대나무

다양한 형태의 화기에 단순히 꽃을 꽂을 수 있는 화기가 아닌 대나무뿐만 아니라 양모, 한지, 지승(紙繩) 등의 다양한 재료로 화기 자체의 장식성을 고려한 화기의 사용이 늘고 있다.(도24)

③ 한지

닥나무로 만든 한지를 천연염료로 색색이 물들여 미송이나 오동나무 또는 합지로 만든 골격에 여러 번 덧발라 문양을 넣는 것으로 종이를 재료로 한 색지 공예는 실용성과 장식성을 함께 요구하는 현대 생활용품에 적합한 소재이며 제작기법이 간단하여 취미생활 뿐만 아니라, 색상과 문양이 다양하고, 재질이 포근하며 단단해 그 쓰임새가 많아 관광 공예품으로도 평가 받

고 있다. 또한 종이를 꼬아 그것을 엮어서 만든 것을 지승이라 하는데 지승공예는 무늬를 엮는 방법에 따라 모양이 달라지고 색지나 검은 물을 들인 종이를 함께 넣어 엮기도 한다. 또한 무늬뿐만 아니라 외형에도 다양한 변화를 주어 갖가지 형태를 만들어 낸다.(도25, 26)

④ 초경

예부터 내려온 가구나 공예품 등 전통적 이미지를 담고 있는 전통공예품 중 하나이며, 왕골, 싸리, 짚, 등나무 등의 줄기나 뿌리를 가공하여 만드는 공예를 일컫는다.(도27)

2) 동물성

① 양모

양의 털, 모직물의 원료가 되어 펠트(Felt)¹⁵⁾를 이용한 기법으로 실생활에 소품으로 만들어져 사용된다.(도28)

3) 광물성

① 유리(glass)

유리는 모양과 크기, 스타일의 선택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아주 넓다. 유리는 단순하고 편하면서도 질도 좋고 우아한 느낌을 함께 보여 준다. 빛이 통과하는 성질 때문에 또 다른 차원의 아름다움을 더할 수 있다.

또한 맑고 깨끗함을 느끼게 하는 유리화기는 내부를 그대로 보여 주게 됨으로 투명하여 시원한 느낌을 준다. (도29)

② 플라스틱(plastic)

플라스틱은 모양, 크기 및 색상이 다양하고 가격이 저렴하며 깨어지지 않

15) 양털이나 그 밖의 짐승 털에 습기와 열을 가하여 눌러 만든 두꺼운 천 모양의 물건. 모자나 양탄자 따위를 만드는 데 쓰임.

는다. 플라스틱 화기는 다른 유리 · 놋쇠 · 세라믹 등의 재료들로 만든 화기와 같은 외양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값이 싼 물건으로 보이지 않고, 가볍기 때문에 사용된 꽃이 키가 크고 무거운 경우에는 안정성을 위해서 돌이나 모래 · 자갈 · 석고 등의 무거운 것을 안에다 넣어야 한다.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 생화나 조화도 모두 잘 어울린다. 그러나 햇볕에 노출되면 쉽게 탈색되고 수명도 짧아지며 통기성이 좋지 않아 토양환경이 나빠질 수 있다.(도30)

③ 도자기(porcelain)

점토 용기에 유약을 바르고 고열 처리하여 만든 것으로 촉감과 색감이 좋고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재료이다. 또한 내구성과 방수성도 우수하나 무겁고 파손될 위험이 크며 통기성이 좋지 않고 비교적 고가인 세라믹 화기는 여러 가지 스타일과 유형이 있다. 점토에 열을 가하여 만들어진 도자기에는 도기 · 자기류가 포함된다. 굽기 전후에 사용하는 유약에 따라서 다양한 외양과 질감으로 마무리할 수 있다. (도31)

④ 금속(metal)

은 · 백랍 · 금 · 구리와 청동은 모두 금속이지만, 금속의 특성에 따른 구성은 서로 다른 꽃과 색상을 한층 빛낸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주 다양한 종류의 화기를 만드는데 사용되고 있다. (도32)

⑤ 석재(stone)

돌을 재료로 한 용기는 독특한 자연미가 있으며 중량감과 내구성 및 안정감은 뛰어나지만 무거워 이동하기 어렵고 비싸며 파손될 위험이 크다.¹⁶⁾ (도33, 34)

16) 상계서, p.211.



<도23> 나무



<도24> 대나무



<도25> 한지



<도26> 지승



<도27> 초경



<도28> 양모



<도29> 유리



<도30> 플라스틱



<도31> 도자기



<도32> 금속



<도33> 석재-1



<도34> 석재-2

3. 현대 화기의 형태 및 조형성

현대 사회는 문화수준이 높아질수록 그 문화 양식은 복잡한 것으로부터 단순화되어 가는 경향이 있다. 서구의 경우에 있어서 19세기 전반까지는 건축뿐만 아니라 실내 장식이나 가구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장식과 문양이 많은 복잡한 구조를 나타내고 있었다. 그러나 르네상스로부터 시작하여 로코코에 이르러 종결되는 장식적 체계는 프랑스 혁명과 산업 혁명 이후 점차 사라지고, 그 후로는 간결하게 정리된 심플한 형태가 나타남으로써 문양이나 장식을 과감히 타파하고 대담하게 직선을 도입하는 등 오늘날의 실내 장식, 건축, 가구 등에서도 이러한 개념이 잘 드러나 있다. 17)

주거환경의 다양화와 개성을 추구하는 현대인의 실내 공간은 자연물로부터 간결한 형태로의 경향성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시대적 흐름의 조형성을 갖춘 인테리어 소품 디자인이 많은 작가들에 의해 현대 감각에 어울리는 형태로 제작되어지고 있다. 이러한 실내 인테리어 소품 중의 하나인 화기는 예로부터 화기 자체의 화려한 장식성과 기능성을 갖춘 화기로 사용되어 왔으나 오늘날의 화기는 재료의 다양성과 작가의 감수성에 의한 자유로운 형태의 표현으로 새로운 조형성 양식을 갖추고 있다.

조형적으로는 간결한 형태의 기하학적인 표현양식에서 뿐만 아니라 유기적인 표현양식에서 재료의 쓰임새에 따라 다양한 질감, 색감, 형태에 의해 조형성을 느낄 수 있는 장식적인 미가 부각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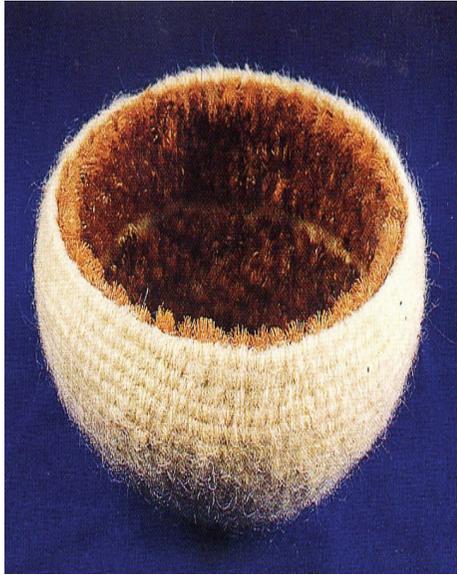
오늘날 현대의 실내공간에서는 다양한 재료의 표현으로 인해 꽃을 꽃지 않아도 실내 환경과 어울려 화기 자체만으로 다양한 조형성을 느낄 수 있는 소품으로 사용되어 지고 있다. 정형화되지 않고 자연미를 느낄 수 있는 화기는 장식적인 것을 추구하는 경향으로 인해 다양한 형태의 표현이 자유로워져 시

17) 김영기, 1991, 「한국인의 조형 의식」, 창지사, p.3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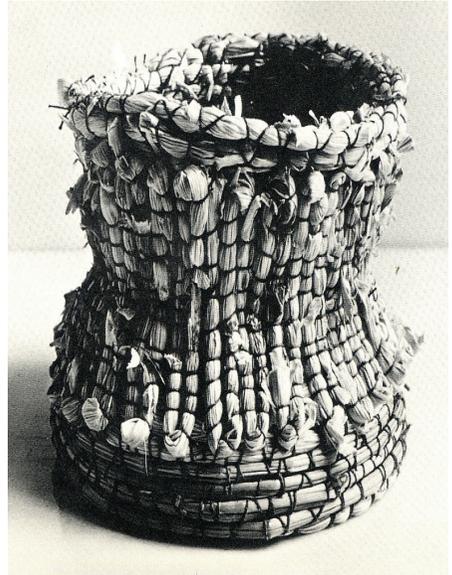
각적으로 즐거움을 줄 수 있는 화기로 대두되고 있으며 섬유, 도자기, 금속, 나무 등으로 재료가 다양함에 따라 그 특성이 다르다.

현대 화기에서 사용되는 식물성재료인 섬유는 가벼운 소재로서 다른 소재와는 달리 섬유자체의 질감을 살릴 수 있어 다양하면서도 풍부하게 재료의 느낌을 표현할 수 있다. 특히 양모는 부드러우면서도 형태를 잘 유지할 수 있어 펠트화시켜 조형물로 표현 할 수 있으며, 양모에 염색을 하여 다양한 색감을 연출할 수 있다.(도35) 또한 짚을 사용하여 섬유 자체의 질감을 살려 정형화되지 않은 수수한 자연의 형태를 표현할 수 있고, 자연 그대로의 색감에서 소박한 자연미를 느낄 수도 있다.(도36) 초경은 섬유 줄기를 가공하여 섬유의 독특한 질감을 느낄 수 있으며,(도37) 한지는 닥나무 껍질의 섬유를 이용해 염색하여 가볍고 부드러운 느낌을 살려 다양한 색과 원하는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도38) 섬유의 짜임으로 제작된 화기는 섬유의 독특한 질감 표현과 함께 화려한 색채표현이 가능하고, 자연에서 느낄 수 있는 고유의 천연 색감을 사용하기도 한다.(도39, 40, 41, 42, 43) 광물성재료인 도자기는 점토의 입자에 따라 질감표현이 다르지만 대부분 질감자체가 매끈하고 부드럽게 표현되어지나 점토나 유약 또는 안료에 의해 표현된 색상은 섬유에 비해 색상 표현에는 제한이 있다.(도44) 금속인 경우 단단하고 차가우며 모던한 느낌을 주는 화기의 질감을 느낄 수 있다.(도45) 이런 다양한 재료로 만든 화기들은 각각 재료의 고유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재료가 갖고 있는 질감과 색감을 통해 각기 다른 느낌을 받을 수 있고, 현대에 와서는 여러 가지 재료를 함께 사용하여 하나의 화기를 제작하기도 한다.(도46)

현대화기는 오늘날 실내 장식의 한 부분으로 확대되면서 기능 또한 확대되어졌다. 장식과 실용을 겸비한 미적 오브제로 정형화되지 않은 다양한 조형형태로 여러 가지 방법과 재료로 표현하여 장식성을 추구하고, 화기 자체만으로도 주위공간과 어우러져 미적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현대적인 생활공간에 필요한 조형적 작품으로 역할이 증가되고 있다.



<도35> 섬유/양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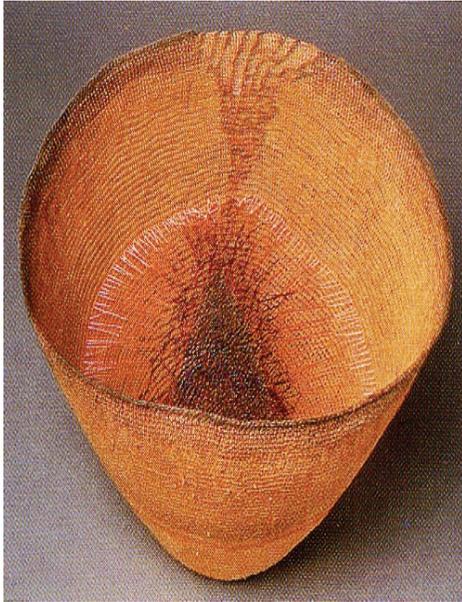
<도36> 섬유/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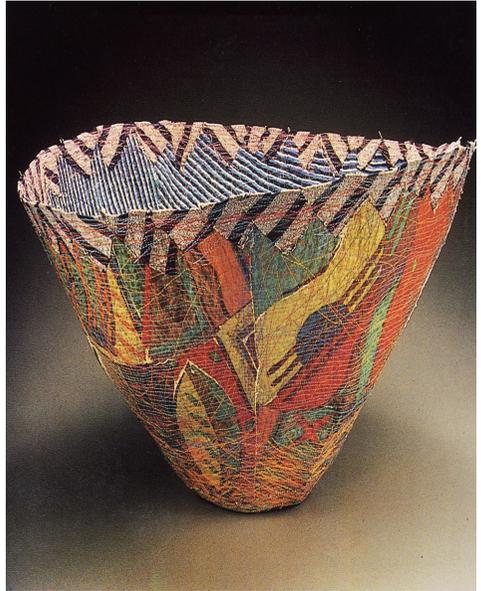
<도37> 섬유/초경



<도38> 섬유/한지



<도39> 섬유-1



<도40> 섬유-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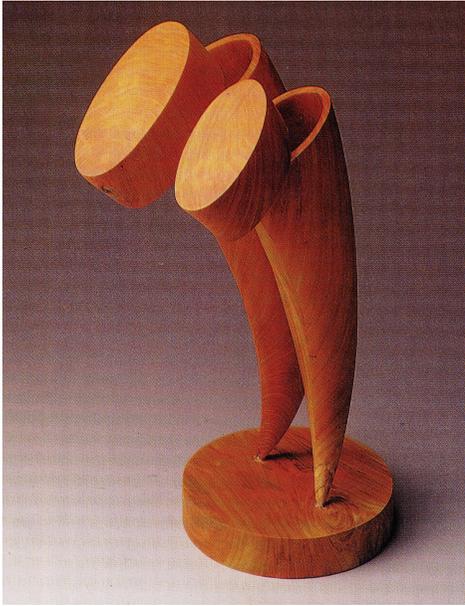


<도41> 섬유-3



<도42> 섬유-4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UL UNIVERSITY LIBRA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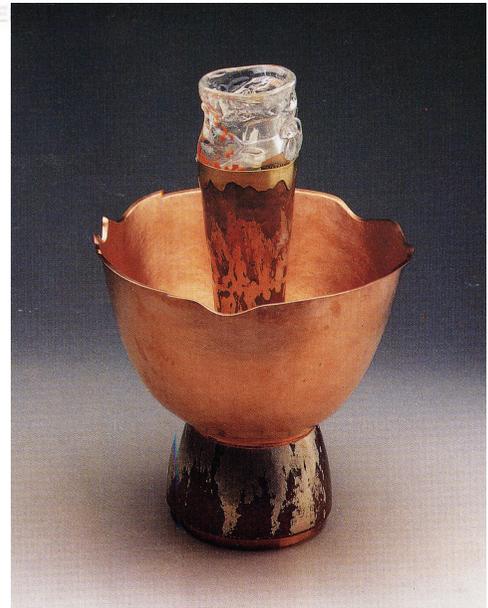
<도43> 나무



<도44> 도자기



<도45> 금속



<도46> 유리, 금속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IV. 자연염색의 일반적 배경

1. 자연염색의 의의

자연염색이란 자연에서 얻어지는 염료로 염색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자연(自然)에서 얻어지는 자연염료(染料)는 크게 식물성(植物性), 동물성(動物性) 광물성(鑛物性)으로 나누어진다.

이중 식물성 염료는 식물의 잎, 꽃, 열매의 즙, 뿌리의 재료를 사용하고 동물성 염료는 동물의 피, 조개, 붉나무에 기생하는 벌레 등의 재료에서 만든 염료이며, 광물성 염료는 황토, 적토, 흑토 등의 재료에서 만든 염료이다. 이중 식물성 염료는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염료이며, 즙을 내거나 삶아서 염료를 추출한다.¹⁸⁾

이 모든 염료들을 섬유에 염색하는 것을 자연염색이라 한다.

염료에는 한가지 색만을 낼 수 있는 단색성(單色性) 염료가 있는가 하면, 매염제(媒染材)¹⁹⁾의 종류, 색소 추출온도, 염색하는 과정 등에 따라 한가지 염료로 여러 색을 낼 수 있는 다색성(多色性)염료가 있다.

자연염색은 자연에서 채취되는 색소로 염색을 하기 때문에 자연을 보는 것과 같은 자연스런 색감을 얻을 수 있어, 눈을 피로하게 하지 않고 차분한 정서를 만들어 준다. 또한 자연 친화적이기 때문에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으며 인체에도 유익하다.

이런 자연염색은 오랜 세월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자연의 아름다움을 간직하고픈 인간의 욕망에서 사용하여 왔으나, 1856년 영국의 화학자 퍼킨(W.

18) 한광석, 1997, 「쪽물들이기」, 대원사, p.14.

19) 매염에 쓰이는 화학 물질(백반, 녹반, 타닌 따위) 매염료(媒染料)

H. Perkin)²⁰⁾이 우연히 적자색(赤紫色)의 합성염료를 처음 발견한 이후 합성 염료의 발전 및 대량생산으로 말미암아 견뢰도가 약한 자연염료는 많이 사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날에 이르러 자연염색의 아름다움과 건강에 좋은 재료로 인식되면서 세계 여러 곳에서 자연염료에 의한 염색과 연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2. 자연염색의 종류

1) 식물성 염료

식물성 염료란 식물계에서 얻어지는 염료를 말하며, 자연염료 중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다. 식물성 염료는 목초 종류에 따라서 사용되는 부분이 다르며 열매, 잎, 줄기, 뿌리, 껍질 등을 각각 따로 염재로 사용할 수 있으며, 염재를 삶아서 염료를 추출하여 염색하는 직접성 염색방법, 이것을 금속성의 매염제를 사용하여 발색시키는 방법, 염료로 염색하여 햇볕에서 발색시키는 방법, 또는 발효시켜 환원하여 사용하는 환원법이 있다. 염료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알려진 목초는 약 400여종이 있으며, 그 중 사용도가 많은 것으로는 250여 종류가 있다.

국내 식물염료 자원은 대부분이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일부 몇 종을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염료 자원을 우리 주변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것으로 사용한다. 대표적인 색상별로 보면 푸른 계열은 대개 쪽을 많이 들이고, 닭의 장풀, 다정콤, 사스레피에서도 청색을 얻는다.

붉은 계열은 잇꽃이나 꼭두서니 이외에 소목, 주목, 살구나무, 매화나무, 꼭두서니, 자초(자근) 등에서 얻으며, 노랑색은 치자, 황백, 조개풀, 금승화, 옷

20) 영국의 화학자. 1856년 19세에 아닐린(Aniline)에서 퀴닌(quinine)을 합성하는 도중 우연히 mauve라는 자색의 염료 제주에 성공

나무액, 소태나무액, 손귀나무 수피, 황련, 울금, 갈대, 괴화, 소나무, 느티나무 등에서 얻는다.

검은빛은 먹, 붉나무의 오배자와 굴참나무의 수피, 밤꽃나무 꽃, 가래나무액, 먹, 오리나무, 신나무 등이 있으며 갈색계열은 해당화, 오리나무, 정향나무, 쑥, 도토리 열매와 수피, 감나무, 밤나무 등이 있다. 청록색 계로는 쪽, 쑥, 자귀나무, 다갈색 계로는 떡갈나무, 상수리나무 등이 있다.

2) 광물성 염료

광물성 염료는 대개 안료(顔料)이지만 사용 역사는 다른 염료보다 오래 되었으며, 색소가 함유된 흙이나 암석 가루를 사용하였다. 섬유에 염착력이 약하여 염료를 안착시킬 수 있는 풀이나 아교를 이용하기도 한다. 고대 이집트에서 사용했던 것으로는 녹청²¹⁾, 공청²²⁾, 골흑²³⁾ 등이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주토²⁴⁾ 황토, 주²⁵⁾ 단,²⁶⁾등을 사용하였으며 요즈음은 송이석,²⁷⁾ 제주토로 염색을 하고 있다. 색토 또는 안료를 사용하여 채색한 최고 유물은 1만년~1만 5천년 전의 오래된 것이 알려져 있다.²⁸⁾ 천연의 광물 염료는 그림물감을 이용되는 것이 많으며, 요즘은 천연염료로 이용가치가 점차 늘고 있는 추세이다.

21) 염기성 초산구리로 만든 녹색 도료

22) 금동광에서 나는 빛이 푸른 광물로 염료나 약재로 쓰임

23) 소, 말, 돼지 등의 뼈를 건류하여 얻는 활성탄으로 인산칼슘, 탄소 등으로 이루어지며, 탈색성, 흡광성이 강하여 용액의 정제, 탈색제, 또는 흑색 안료로 쓰임

24) 빛이 붉은 흙

25) 수은과 황으로 만든 빛이 붉은 고급 안료

26) 수은의 황화 광물로 육방정계에 속하며 결정편은 선홍색이고 다이아몬드 광택이 있고, 대개는 덩이 모양, 또는 흙 모양이며, 적갈색으로 수은의 원료 또는 적색 안료로 쓰임

27) 아교를 녹인 물에 그을음을 반죽하여 굳혀서 만들며, 글씨나 그림을 그릴 때 사용하는 검은 물질

28) 조경래, 1991, 「염색이론과 실험」, 형성출판사, p.25.

3) 동물성 염료

동물성 염료는 패류(패類)의 분비물이 색료가 되는 것과 소충(小蟲) 그 자체가 색료가 되는 것, 오징어 먹물 등의 세 종류가 있으며, 동물계에서 얻어지는 염료로 다음의 2가지가 유명하다.

① 코치닐(Cochineal)

기원전 17세기 이전부터 아시리아(Assyria)에서 사용되었다고 하며, 중남미 사막지대에 자생하는 선인장에 기생되는 연지충을 분말로 만든 홍색 염료가 유명하다. 코치닐은 원료충을 건조하여 분말로 만든 다음 암모니아 혹은 탄산나트륨용액 중에서 끓이고 불용분을 여과한 후 물과 알콜의 혼합액으로 추출, 농축하여 풀 모양의 것이나 분말상태로 얻는다. 코치닐은 주로 면, 견, 양모의 염색에 이용되며 또한 식품이나 화장품, 생체조직의 염색에도 이용된다. 특히 이것으로 만든 적색 잉크는 퇴색이 잘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다.

② 티리언 퍼플(Tyrian Purple)

지중해 연안에 서식하는 권패류인 뮤렉스 고둥의 아가미 아래에서 분비되는 황색의 액을 공기 중에서 보라색으로 산화시킨 것이다.²⁹⁾

29) 전계서, 1991, p.25.

3. 자연염색의 방법

자연염료는 일반적으로 식물염재를 사용하는데 식물에 있는 색소를 가열하면서 추출하여 실이나 직물에 물들이게 되는데 자연염료는 대부분 그 염재가 가진 색소·성분·추출시간·추출온도에 따라서 색이 달라지며 매염제에 의해 색을 고착시키거나 여러 가지 색상으로 발색된다.³⁰⁾

우리나라에서 주로 사용되어온 식물성 염료는 한 가지 색상만 추출할 수 있는 단색성 염료와 두 가지 이상의 색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다색성 염료가 있으며 매염제를 사용하는 방법과 매염제를 사용하지 않는 방법이 있다.

1) 단색성 염료의 염색방법

매개체 없이 염료와 섬유가 직접 반응하는 직접성 염료와 중간물질의 성분에 따라 반응하여 염색되는 환원 염료로 크게 두 종류가 있다.

치자, 울금, 황백 등은 직접성 염료로 염재에서 염료를 추출하여 다른 처리 없이 섬유를 담가 직접 염색한다.

단색성 염료는 대부분 직접성 염료로서 식물의 꽃이나 잎, 뿌리, 나무껍질, 나무의 심재, 열매들을 잘게 다듬어 물에 끓여서 만든다.

환원 염료에는 쪽의 경우처럼 불용성 색소를 알칼리로 환원하여 염색한 후 공기 중에 산화시켜 본래의 불용성 색소로 돌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염색하며 견뢰도가 가장 우수한 염료이다.

황벽과 황련은 염기성 염료로 동물성 섬유에 염색이 잘되는 특징이 있으며 특히 홍화에는 수용성인 노란색 색소와 불용성의 붉은색 색소가 함유되어 있다. 물에 용해되는 노란색 색소는 직접성 염료이며, 붉은 색 색소는 알칼리성 수용액에서 추출하여 염색한 후 산성에 중화하면 붉은 색으로 염착이 된다.

30) 장필순, 1985, “자연염료와 염색에 대한 연구 - 문헌 수집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p.34.

2) 다색성 염료의 염색방법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염재에 여러 가지 색소가 들어 있어 추출 방법에 따라 색소가 달리 나오는 염료를 말하며, 대표적인 것이 홍화이다. 다른 하나는 매염제에 따라서 색이 달리 나타나는 염료를 말하는데, 대표적으로 소목이 여기에 속한다. 소목은 산에서는 노란색을 알칼리에서는 붉은 자주색을 띤다. 감, 소목, 꼭두서니, 자초, 도토리, 동백, 쪽 등이 매염에 따라 색이 변하는 다색성 염료로 물에 넣고 가열하여 염액을 추출하거나 염재를 짓이겨 나온 즙으로 직접 염색한다.³¹⁾

3) 매염제에 의한 방법

매염제는 천연염색 시 발색을 좋게 하고 섬유에 고착력과 견뢰도를 증가시키며 염착성이 없는 염료와 섬유 사이에서 간접적으로 염색성을 갖게 하는 중간조제를 매염제라고 한다. 매염 방법에는 선매염, 후매염, 동시매염이 있다. 매염제는 한 가지 종류의 염료일지라도 종류, 농도, 온도, 시각에 따라 염색물의 색상이 미묘하게 변화한다. 또한 수세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변·퇴색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매염처리 후에는 충분한 수세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철, 알루미늄, 동, 명반을 매염제로 사용하였다.

① 철매염제

철매염제로 염색된 섬유는 전반적으로 짙은 갈색, 흑색, 회색 등 어두운 색조를 띤다. 철은 황갈색의 액체로서, 제조한지 반년 이상 지나면 검게 침전이 생기고 매염효과가 떨어지므로 신선한 것이 좋고, 섬유 중량의 2~3%를 물에 풀어서 사용한다. 양모의 경우 철매염에 의해 손상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31) 오해경, 2002, “천연 염색 한지의 조형적 가능성에 관한 연구 - 생활공예품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p.24.

② 알루미늄매염제

알루미늄매염제는 전통적으로 널리 이용되어 온 안전한 매염제로서 전반적으로 색상을 밝게 해준다. 시판되는 알루미늄매염제로는 초산알루미늄과 염화알루미늄이 있으며, 명반을 천의 8%로 사용하기도 한다.

초산알루미늄은 흰색 가루로서 침염 할 때에는 섬유 중량의 4~5%를 따뜻한 물에 잘 녹여 사용한다. 30℃ 이상 되면 흰 침전이 생기므로 가열해서는 안 된다. 침전이 생겼을 때에는 윗물만 사용한다.

③ 동매염제

구리매염제로 초산이 첨가되어 있는 매염제로 초산동은 녹황색 가루로서 섬유 중량의 3%를 더운물에 녹여 사용하며, 동매염은 염색된 섬유에 녹색을 띄게 하고 일광 견뢰도를 높여 준다.

④ 명반

명반은 알루미늄매염제의 일종으로 물에 잘 녹지 않아 소량의 물에 넣어 투명해지도록 끓인 다음 적량의 물을 추가해 사용한다. 실크의 경우 섬유 무게에 대해 명반은 8~10%를 사용한다. 염색 후 산이 남아 변색할 수 있으므로 행구기를 철저히 한다.

4) 염색과정

염재와 옷감, 기본적인 도구를 준비하며, 물들일 옷감을 정련(精練)³²⁾하거나 탈호 시키며, 이미 정련 탈호 된 마른 천을 물에 담가 불려놓고, 그 다음 준비한 염재에서 100℃에서 30분 정도 끓여 색소를 추출하여 염액을 만든다. 옷감을 염액에 담가 45℃~50℃에서 30분 정도 염색을 하고, 색상의 견뢰도를 높이고, 발색은 35℃에서 25분간 매염한다. 색상 견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염색, 매염을 여러 번 해주며 매염을 한 뒤 깨끗한 흐르는 물에 3번 이상 수세한 후 건조한다.³³⁾

32) 천연 섬유에 들어 있는 잡물을 없애고 표백이나 염색을 완전하게 하기 위한 준비 공정

V. 작품제작 및 설명

1. 제작배경

1) 제작의도

예술가에게 있어서 창작 행위는 신선한 삶의 의미를 제시해 주기도 한다. 그 의미는 작가의 실질적인 경험내지는 그 스스로의 생각 또는 사상과 철학의 산물이기도 한 것이다. 많은 예술가들의 삶은 그들 자신만의 독특한 지식 수준과 본질적인 경험을 통해 생성되어진다.

오늘날은 예술작품의 본래적 가치와는 상관없이 예술작품이 우리들의 생활 환경, 감수성, 생각을 장식해 줄 수 있는 기능도 하고 있다.

따라서 본인은 개성 있고 창의적인 실내 환경을 추구하는 현대인들에게 심미적인 만족도를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섬유로 화기디자인을 계획하였고 단지 실용성만을 위한 화기보다는 그 자체로서 실내 공간을 장식하고, 형태를 감상함으로서 얻는 삶의 풍요로움을 지향하고자 하였다.

화기는 단지 생활용품만으로 사용되어진 것이 아니라 창의적인 표현과 자의식을 실험하고자 하는 정신의 세계가 반영된 작품성이 강한 시각언어로 표출된 조형적 아름다움을 추구하고자 하였다.

실내에서 하나의 장식으로 쓰이는 화기는 실내의 환경과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룰 수 있고, 천연 소재의 자연염색의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색상과 기하학적인 형태를 접목 시켜 현대적인 화기디자인을 제작하고자 하였다.

33) 이승철, 2001, 「자연염색-내손으로 만드는 자연의 색」, 학고재, p.48.

2) 제작방법

본 연 작품에 제작방법에서 천연염색의 재료인 오배자, 괴화, 소목, 검은콩, 치자는 염재를 끓여서 염료를 추출하여 염색하며, 먹물은 침염법으로 염색하고, 감염재는 으깨어 염료를 추출하며 천에 골고루 감즙이 묻게 한 후 햇볕에 발색하였다. 작품의 기하학적 형태는 합지를 사용하여 각각의 작품의 지 구조에 따라 절단하여 천과 함께 붙여 제작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자연염색방법

① 일반적 염색방법

- 가. 염색할 천의 불순물과 풀기를 없애기 위해 정련처리 한다.
- 나. 염재로 사용되는 오배자, 괴화, 소목, 검은콩, 치자 등의 마른 재료는 염색하기 하루(24시간) 전 물에 넣어 불린 후 끓는 상태에서 30분 정도 열을 가한다.
- 다. 열을 가한 후 채에 염재를 걸러 1차 염액을 추출한다.
- 라. 염색방법은 전처리된 천을 추출된 염료에 넣고 45℃~50℃에서 30분 정도 염색한 후 35℃ 정도의 매염제에 25분간 매염한다. 3회 정도 행구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서 말린다.
- 마. 오배자, 괴화, 소목, 검은콩으로 염색된 천에 동매염, 철매염, 알루미늄 매염제를 3~4%로 하며 35℃에서 25분 정도 매염처리 한다. 동일한 염액이라도 매염제의 종류에 따라 여러 가지 색을 연출할 수 있으며, 직접성 염료는 매염제를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② 감물 염색방법

- 가. 염색할 천의 불순물과 풀기를 없애기 위해 10분간 끓인다.
- 나. 염색하기 전에 풋감을 따서 꼭지를 떼어내고 그릇에 담아 으갠다.
- 다. 감즙에 탈호³⁴⁾ 한 천을 넣고, 천에 골고루 감즙이 묻게 한다.

라. 감즙을 묻힌 천을 구김이 없게 잘 펴서 햇볕에 말린다.

마. 말린 천에 물을 축이고 구김이 없게 손질하여 다시 말린다

바. 물을 축이고 말리는 과정을 여러번 반복 할수록 색상이 짙은 갈색으로 변한다.

사. 색상을 짙게 하기 위하여 갈색으로 염색된 천에 철매염제를 사용하여 매염처리한 후 3회 정도 행구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서 말린다.

③ 먹물 염색방법

가. 염색할 천의 불순물과 풀기를 없애기 위해 정련처리 한다.

나. 천이 충분히 잠길 정도의 미지근한 물에 먹물을 넣고, 물의 온도가 미지근할 상태에서 천을 넣은 후 끓는점까지 온도를 높여서 30분 동안 끓는 상태를 유지한다. 이때 얼룩이 생기지 않도록 잘 저어 준다.

다. 천의 무게에 3~4% 명반과 소금을 물에 녹여 염색된 천을 넣고 매염처리 한 후 3회 정도 행구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서 말린다.

(2) 합지 붙이기

① 두께 5mm인 합지에 디자인된 형태를 도안한다.

② 도안된 형태는 도구를 이용해 자른다. 이때 합지의 두께가 각을 맞출 수 있게 45°로 자른 후 염색된 천을 감싸 붙인다.

③ 천을 감싼 도안된 형태를, 디자인된 형태에 맞게 붙여 제작한다.

(3) 바느질 기법

색상이 다른 감물 염색된 두장의 천을 박음질 기법을 이용해 이어 천의 겹쳐진 부분을 세워 물결의 흐름을 표현한다.

34) 풀기를 없애는 것

2. 작품설명

<작품1> 봄의 향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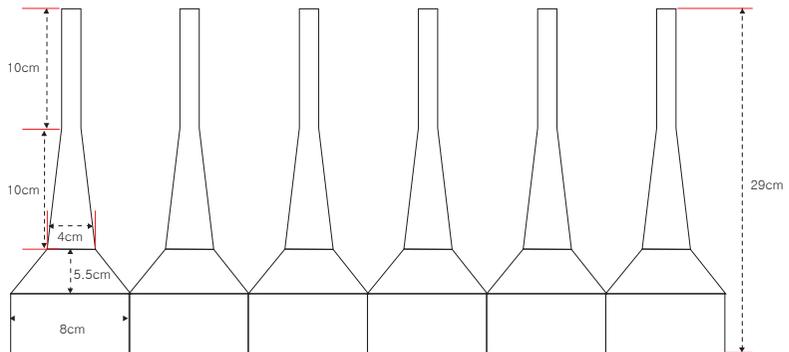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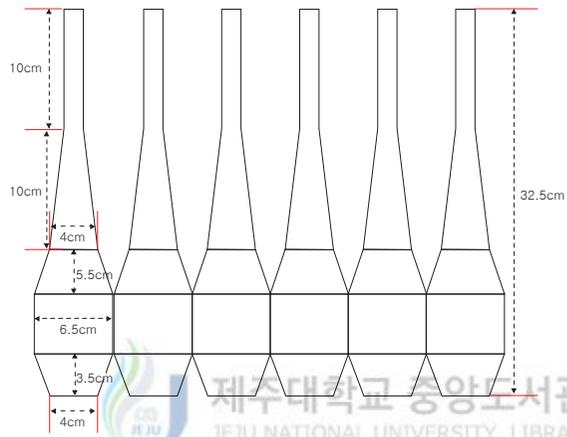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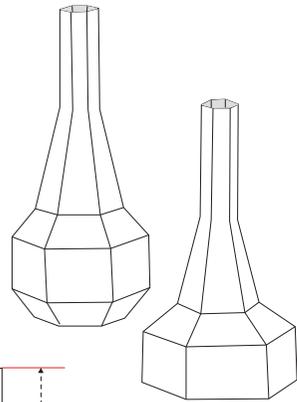
color



- 디자인 의도 : 봄내음이 물씬 풍기는 제주 자연의 유채꽃을 모티브로 노랑색 꽃의 황색계통으로 자연염색을 하여 자연의 향기를 표현하였으며, 기존의 화기형태에서 모던하면서도 기하학적인 형태에 흘치기염색기법을 이용하여 봄바람에 의해 향기가 퍼져가는 이미지를 담아 표현함

- 용 도 : 화기(花器)
- 재 료 : 명주, 합지
- 염 재 : 치자
- 매 염 제 : 알루미늄
- 크 기 : 15×15×20(cm)
- 제작 기 법 : 치자로 염색된 무늬없는 천과 흘치기기법으로 염색된 흘치기 무늬의 천을 각각 제단된 합지에 붙이고, 천을 붙인 합지를 디자인된 형태로 제작한다.

지기구조 (60%로 축소)



〈작품2〉 바람결따라I



color



- 디자인 의도 : 붉은 단풍으로 물든 제주 한라산을 모티브로 황색 계열의 자연색상인 감물 염색된 천을 박음질 기법을 이용하여 가을을 알리는 바람의 물결이미지로 표현하였으며, 제주의 가을 한라산을 이미지로 하며 기하학적인 형태에 부드러운 바람결의 이미지를 부가함으로서 모던함을 표현함

• 종 류 : 화기(花器)

• 재 료 : 인견, 합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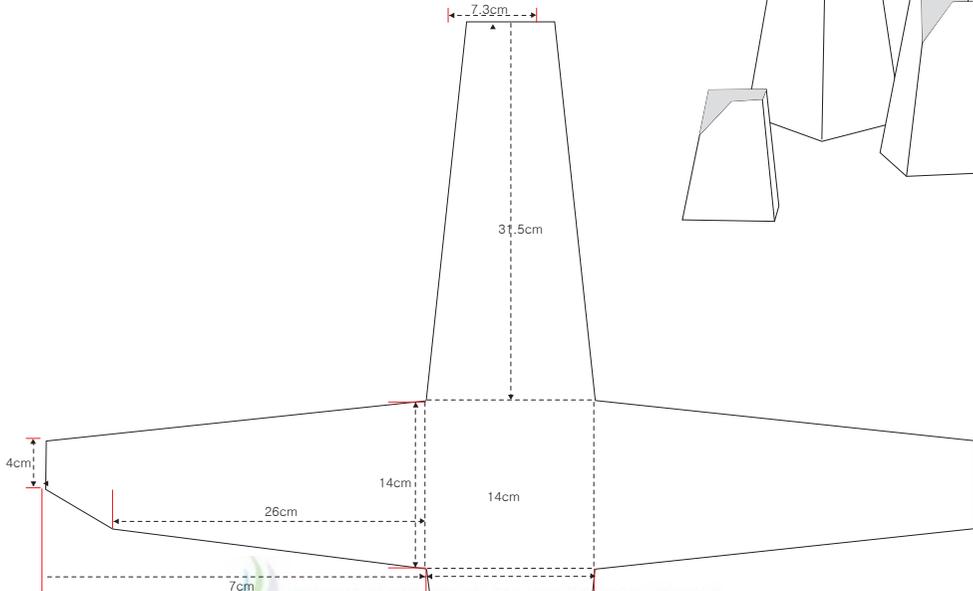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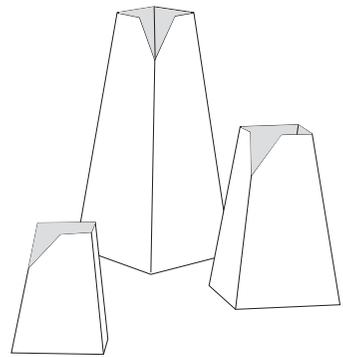
• 염 재 : 감물염료

• 매 염 제 : 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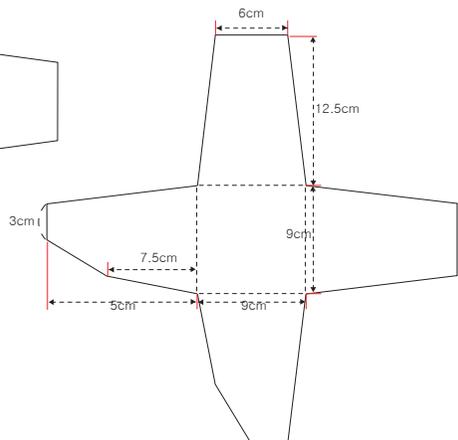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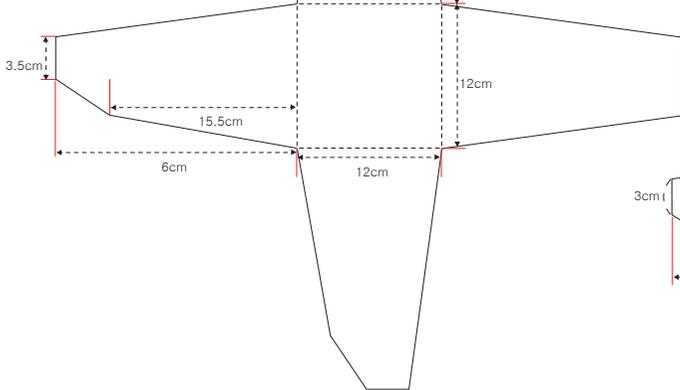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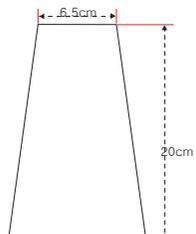
• 크 기 : 30×40×25(cm)

• 제작 기 법 : 색상이 다른 감물로 염색된 2장의 천을 박음질기법으로 이어 바람결의 형태를 만들고, 제단된 합지에 붙여 디자인된 형태로 제작한다.

지구조 (60%로 축소)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작품3〉 바람결따라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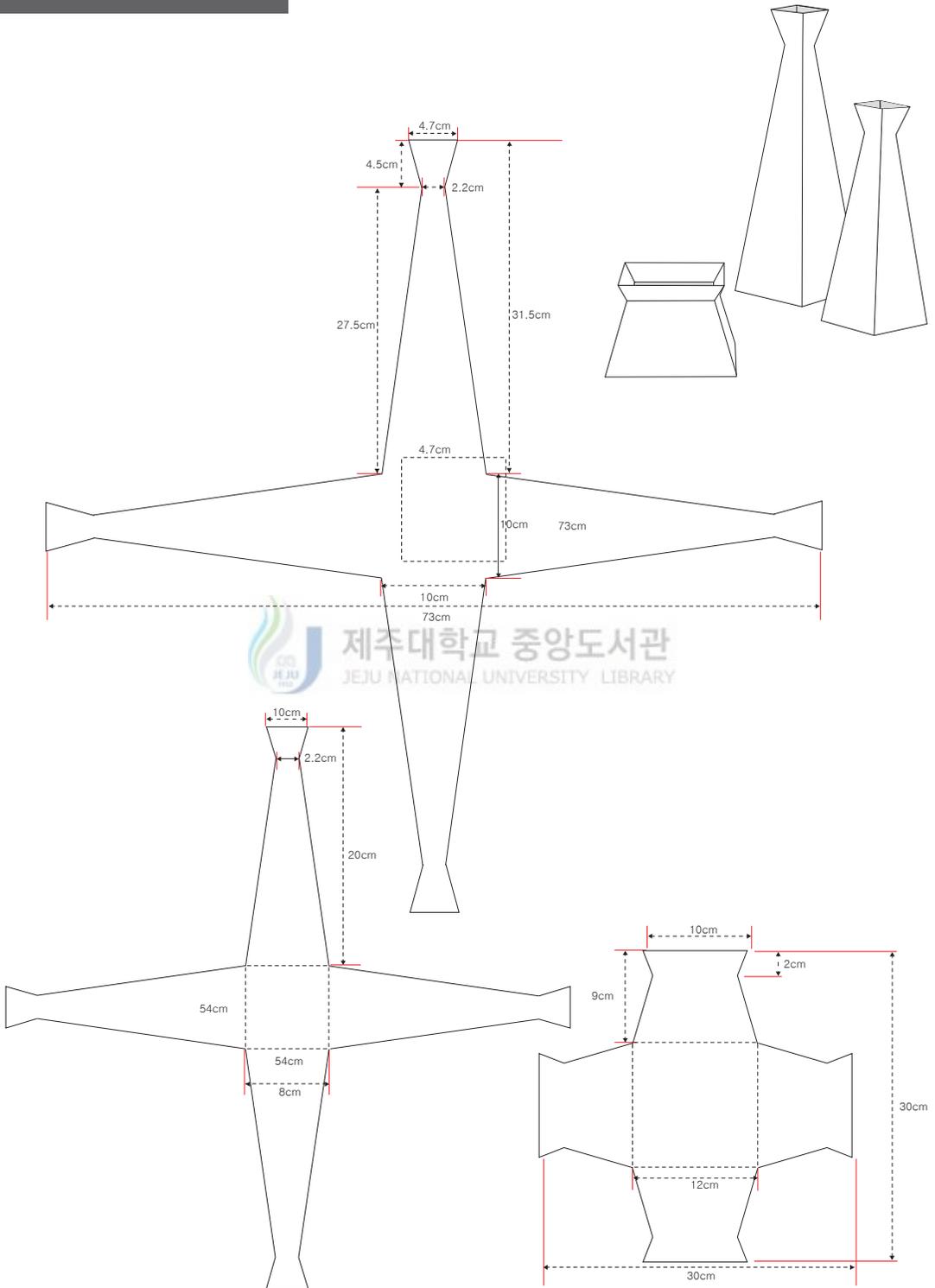
color



- 디자인 의도 : 제주 돌담의 현무암을 모티브로 황색계열의 자연
 색상인 감물 염색된 천을 박음질기법을 이용하여
 가을을 알리는 바람의 물결이미지로 표현하였으며
 자연염색 된 천에 현무암의 거친 질감을 담아 모
 던하면서 기하학적인 형태를 표현함

- 종 류 : 화기(花器)
- 재 료 : 인견
- 염 재 : 감물
- 매 염 제 : 철
- 크 기 : 30×30×25(cm)
- 제 작 기 법 : 색상이 다른 감물로 염색된 2장의 천을 박음질기법
 으로 이어 바람결의 형태를 만들고, 제단된 합지에
 붙여 디자인된 형태로 제작한다.

지기구조 (60%로 축소)



〈작품4〉 꽃그늘에 누워



col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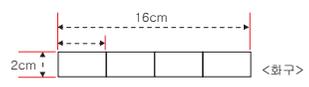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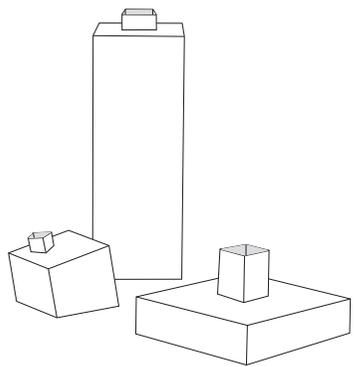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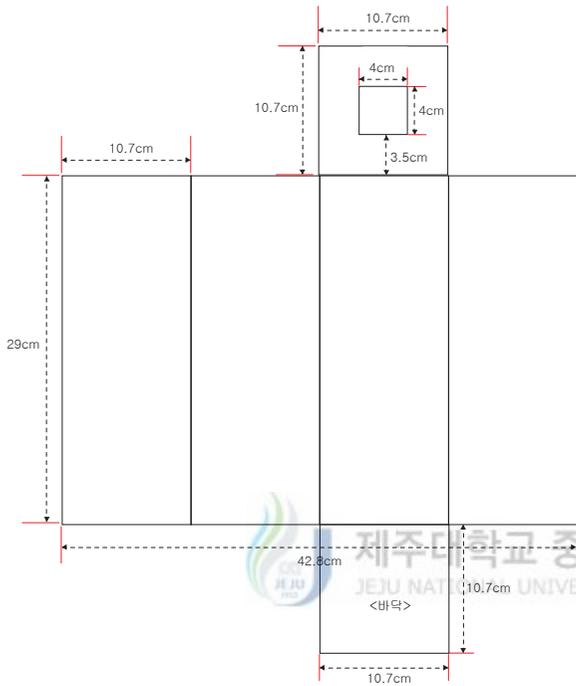


- 디자인 의도 : 바쁜 현대인의 일상 속에서 여유로움을 만끽하고픈 심정을 담아 모던하면서도 기하학적인 형태를 중심으로 바쁜 일상에서 일탈을 꿈꾸는 삶의 여유를 추구하고자 밝은 색상의 황색계열과 그와 대비되는 짙은 무채색계열로 자연염색 된 천을 제작하여 표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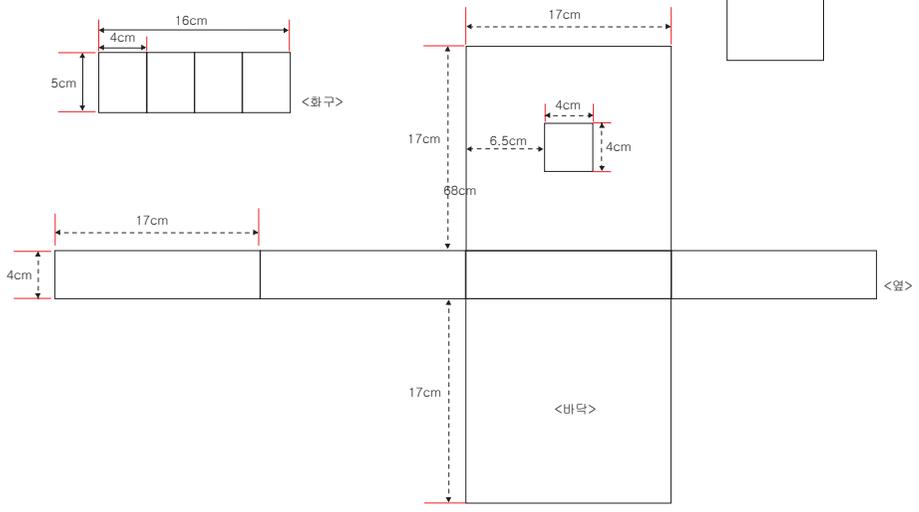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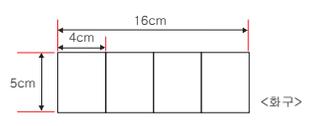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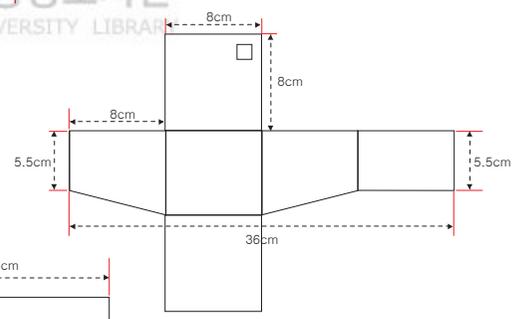
- 종 류 : 화기(花器)
- 재 료 : 인견, 합지
- 염 재 : 먹물, 치자
- 매 염 제 : 명반, 철
- 크 기 : 30×40×30(cm)
- 제 작 기 법 : 염색된 천을 각각 제단된 합지에 붙이고, 천을 붙인 합지를 디자인된 형태로 제작한다.



지기구조 (60%로 축소)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작품5〉 산들바람의 향연



col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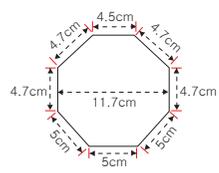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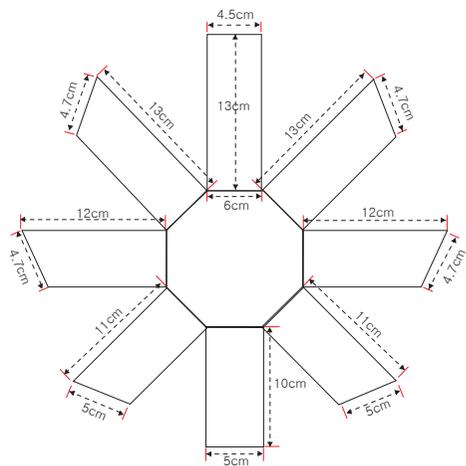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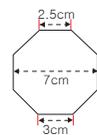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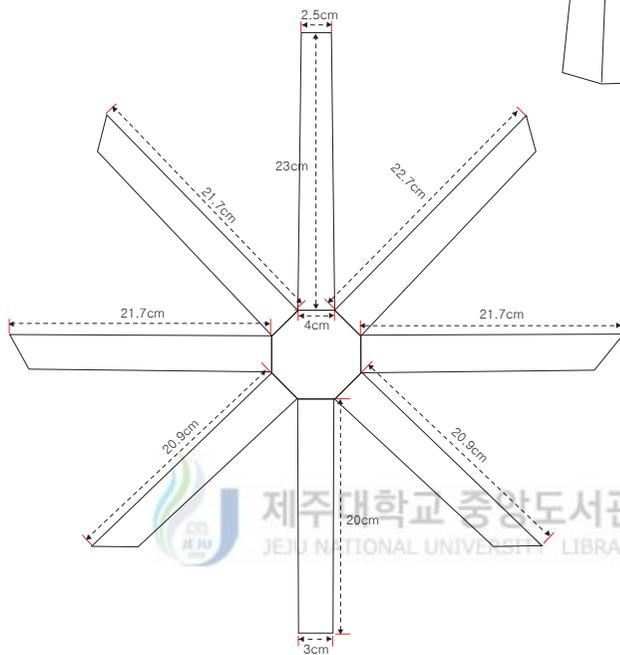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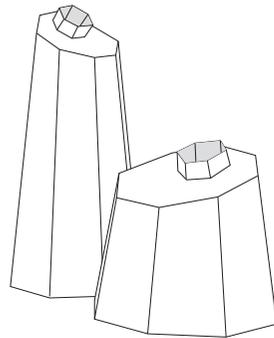


- 디자인 의도 : 단절된 삶속에서 자연을 벗 삼아 삶의 여유를
찾고자 산들바람이 부는 들녘을 모티브로 편
안함을 주는 색조를 가미하여 모던하면서도
기하학적인 형태를 표현함

- 종 류 : 화기(花器)
- 재 료 : 인견, 명주, 합지
- 염 재 : 검은콩, 소목
- 매 염 제 : 명반, 철
- 크 기 : 30×15×25(cm)
- 제 작 기 법 : 염색된 천을 각각 제단된 합지에 붙이고, 천을
붙인 합지를 디자인된 형태로 제작한다.



지기구조 (60%로 축소)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작품6〉 자색빛의 우물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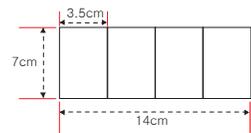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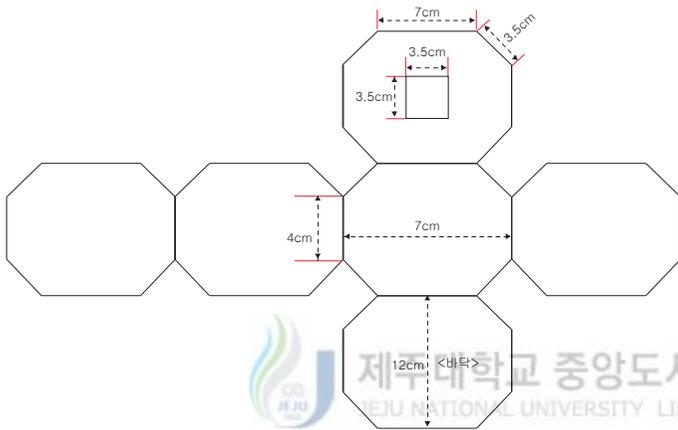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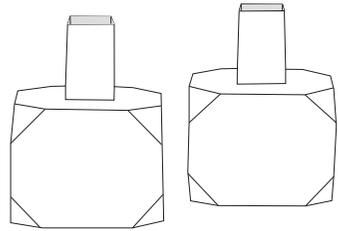


col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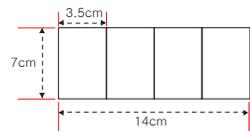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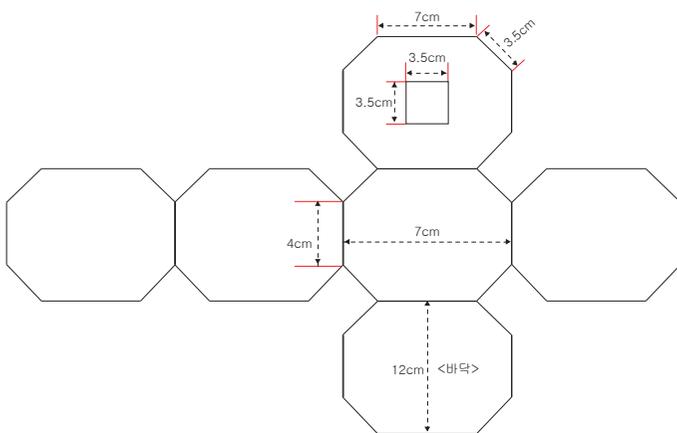


- 디자인 의도 : 일상에 지쳐 행복했던 기억을 회상하며 맘에 담고 싶은 심정을 자색인 붉은색 계통의 화려함과 평화로움의 색상으로 모던하면서 기하학적인 형태를 중심으로 단아함과 소박한 이미지를 표현함
- 종 류 : 화기(花器)
- 재 료 : 명주, 합지
- 염 재 : 소목, 오배자, 치자, 먹물
- 매 염 제 : 철+동(소목), 철(소목), 철(오배자), 철(치자), 명반(먹물)
- 크 기 : 30×15×15(cm)
- 제 작 기 법 : 염색된 천을 각각 제단된 합지에 붙이고, 천을 붙인 합지를 디자인된 형태로 제작한다.

지기구조 (60%로 축소)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작품7〉 꽃향기에 젖어



col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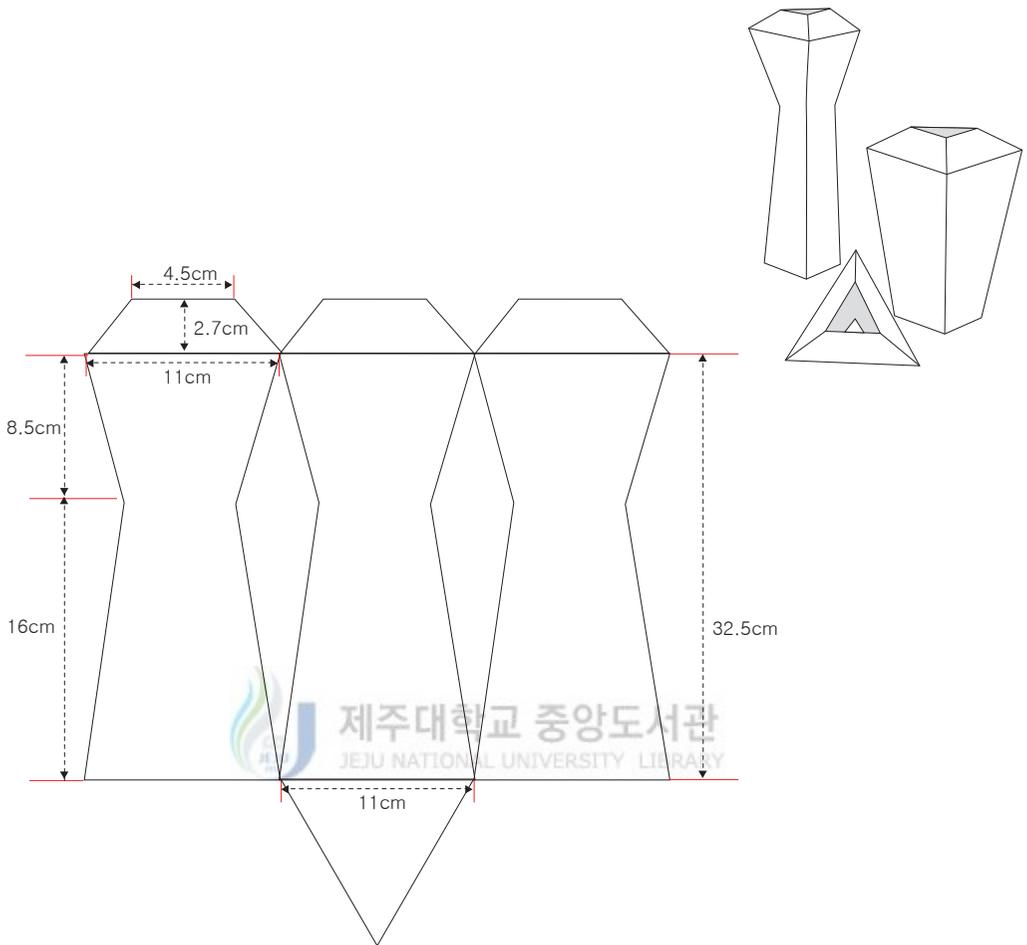


- 디자인 의도 : 제주의 봄날 만발하게 핀 꽃의 이미지를 모티브로
단아한 느낌인 붉은 계열의 색상을 가미하여 단
순한 형태의 화기에 색상의 대비로 인한 화려함을
담아 표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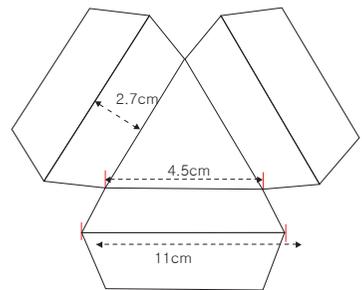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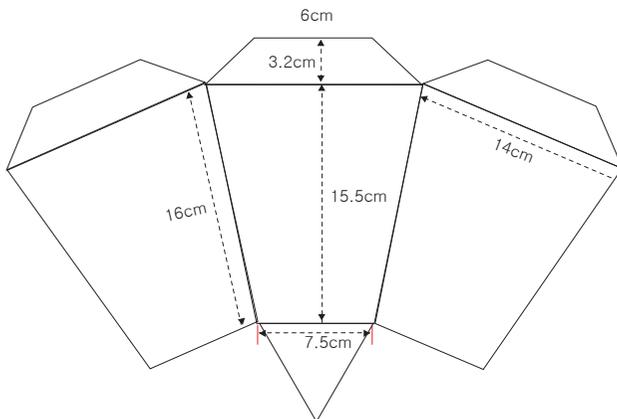
- 종 류 : 화기(花器)
- 재 료 : 명주, 합지
- 염 재 : 소목
- 매 염 제 : 철
- 크 기 : 20×20×30(cm)
- 제 작 기 법 : 염색된 천을 각각 제단된 합지에 붙이고, 천을
붙인 합지를 디자인된 형태로 제작한다.



지기구조 (60%로 축소)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작품8〉 들잎의 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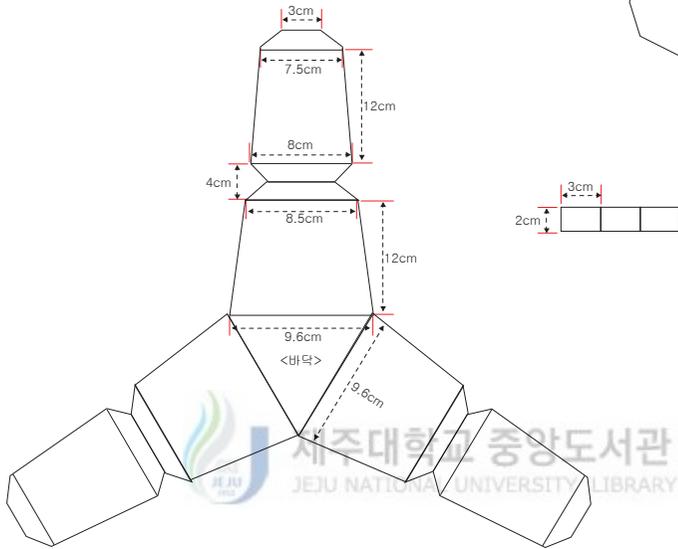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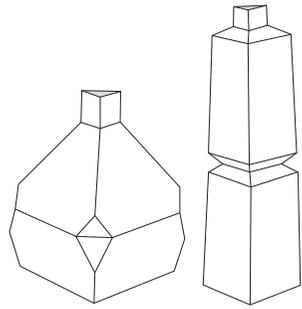
col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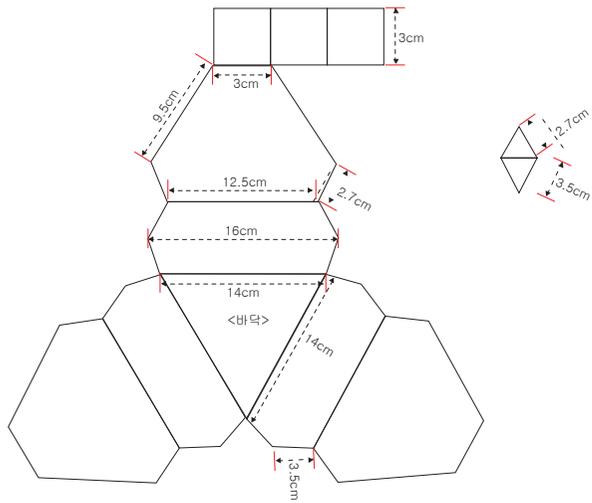
- 디자인 의도 : 봄날 들길의 푸른 들잎을 모티브로 피어오르는 제주
봄의 풋풋한 느낌을 황색계열의 색상으로 표현하였
으며, 기존의 화기 형태에서 과감하게 면분할을 시켜
기하학적인 이미지를 가미하여 푸른 들잎을 실내에
서 느끼고 싶은 심상을 표현함
- 종 류 : 화기(花器)
- 재 료 : 명주, 합지
- 염 재 : 괴화
- 매 염 제 : 철
- 크 기 : 20×15×25(cm)
- 제 작 기 법 : 염색된 천을 각각 제단된 합지에 붙이고, 천을
붙인 합지를 디자인된 형태로 제작한다.



지기구조 (60%로 축소)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VI. 결론

화기는 꽃을 꺾는 용구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화기 자체만으로도 생활양식이나 가구 공간을 장식하는 하나의 소품으로 그 기능이 확대 되어졌다.

옛 문헌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제례의식이나 혼례식 등 엄격한 의식용 제기로 사용된 것에서 점차 예술성을 지닌 장식품의 성격으로 전환되면서 화기의 용도가 단순히 기능적인 면 뿐 만 아니라 예술적 가치를 부여한 조형물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현대인의 미적욕구와 주거생활환경의 변화에 따라 소비자는 현대적 주거환경에서 자연을 느끼고 싶어 하는 경향이 마음속에 편안한 느낌과 여유로움을 준다.

본 연구에서는 자연의 색과 현대적 단순함이 있는 기하학적인 형태로 시각적 즐거움과 정서적 안정감을 주며 현대인의 생활공간에 필요한 조형적 작품을 제작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연에서 채취한 염재를 이용해 실크 소재의 천에 자연염색을 하여 얻은 색상의 배색을 통하여 현대적 미감을 제시할 수 있다.

둘째, 한국적 아름다움의 단순하고 세련된 배색과 기하학적 형태의 화기가 실내로 들어오면서 자연의 정취를 함께 느낄 수 있어 시각적 즐거움과 정서적 안정감을 줄 수 있다.

셋째, 자연재료로 염색한 자연색상은 채도가 낮고 은은하여 현대 생활공간과의 조화로 다양한 형태의 조형성을 가미시켜 자연주의에 기초한 조형적 작품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참 고 문 헌

- 고하수, 「韓國꽃꽂이의 歷史」, 하수출판사, 1974.
- 김영기, 「한국인의 조형 의식」, 창지사, 1991.
- 이승철, 「자연염색-내손으로 만드는 자연의 색」, 학고재, 2001.
- 이승철, 「종이만들기」, 학고재, 2001.
- 한광석, 「쪽물들이기」, 대원사, 1997.
- 조경래, 「염색이론과 실험」, 형성출판사, 1991.
- 양의숙, 「조선의 목공예」, 예나르, 1994.
- 허동화,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구방 문화」, 현암사, 1997.
- 이종남,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천연염색」, 현암사, 2004.
- 금광복, 「한지미술공예」이권기획/이벤트, 2002.
- 권순형, 「'91서울현대도예비엔날레」 삼성출판사, 1991.
- 김미옥 외, 「입체조형의 이해」, 도서출판 그루, 2000.
- 야나기 무네요시, 「공예문화」, 민병산(역) 신구, 1993.
-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의 종이문화」, 도서출판 신유, 1995.
- 김현표, 「한국공예 1991」, 미진사, 1991.
- 김현표, 「한국공예 1993」, 미진사, 1992.
- 김현표, 「한국공예 1993」, 미진사, 1993.
- 지정용, 「한국공예 1993」, 세창기획, 2004.
- 전승공예회, 「제19회 전승공예대전」 안전사, 1994.
- KATE MATHEWS, FIBERARTS DESIGN BOOK THREE.
- ROB PULLEYN, THE BASKETMAKER'S ART, Lark Booka.
- 이희정, “한국의 야생화 이미지를 형상화 한 화기디자인 연구” 석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디자인대학원, 2003.

여선민, “도제 인테리어 소품 디자인 개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장필순, “자연염료와 염색에 대한 연구 : 문헌수집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
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5.

오해경, “천연염색 한지의 조형적 가능성에 관한 연구 : 생활공예품을 중심
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2002.

